

한국 시민사회단체 위기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들어가며

(1) 2024년 가을,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저자의 질문들

- 시민사회단체를 우회하여 정치사회 혹은 정당정치로의 쓸림을 어떻게 보는가?
- DINK(Double Income, No Kids)는 돌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 당신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2) 한국시민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부재

- 시민사회 내 엘리트주의를 넘어선 지식인의 역할과 참여 위기
- 정부-정당-시민사회운동의 순환적 연결고리의 부재 위기
- 디지털 혁명의 습격과 아래로부터의 저항 (sousveillance) 위기
- 세대/진영/젠더 갈등을 넘어선 소통과 협력의 담론 위기

(3)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

-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각각 마주한 위기와 도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필요
- 거시와 미시의 연결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
- 돌진적 근대화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특수한' 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광의의 시민사회 영역으로 '추격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진단이 필요
-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디지털 혁명으로 도래한 정보 지배체제(information regime)와 Algocracy 도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전략 모색이 절실
-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적 실천 과제는 '시민성' 성찰과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다시 서기로 수렴
-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구축 실험에 참여

2. 한국 시민사회가 마주한 국내외적 위기

(1) 국가적 위기

- 저출산율 (합계출산율 0.72, 세계 최하위, 2023년)

- 자살율 (24.6명/10만 명당, OECD 1위, 2019년)
- 한국 평균수명 84.3세 (2021년 한국인구통계)
- 초고령화 사회(65세이상 인구, 16.8%) 진입 임박
- 개인화: 1인가구 30% 넘음 (이기적 개인주의)
- 지역 농촌공동체 붕괴: 중앙-지방격차; 지방회생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인권;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

(2) 전지구적 위기

- 디지털혁명, 플랫폼경제, Algocracy 도래
- 기후위기, 기후 재난
- COVID-19, 엔데믹 사회경제적 영향, 정신 건강과 외로움 (고독사)
-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202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3

3.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마주한 위기와 도전

(1) 회원에 대한 도전들

- 주민과 시민 ‘사이’
-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연대활동 감소
- 전문가 참여 감소: 운동가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가 운동주의?
- 1인 NGO의 증가: ‘운동성’의 견지와 사회혁신의 추동자?
- 이주민 회원 참여와 다양성 제고
-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 불안정 노동자(Precariat)에 대한 포용과 참여

(2) 조직운영에 대한 도전들

- 시민사회단체의 운영 한계
- 강한 연줄에 기초한 연대 및 협력활동의 한계
- 광의의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열린 자세
-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에 대한 비판적 자세
- 연결과 네트워크 사이: *“we are 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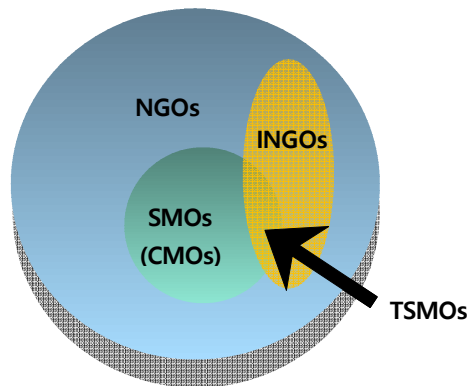
(3) 협치에 대한 도전들

- 끈기-소통-참여-혁신의 순환적 연결고리

- 중간지원조직, 아래로부터 구성 전략
- 정부와 기업에 대한 태도, 비판적 갈등과 경쟁 파트너
- 솔루션과 임팩트 그리고 정책 경쟁
- 가치 갈등 혹은 가치 전쟁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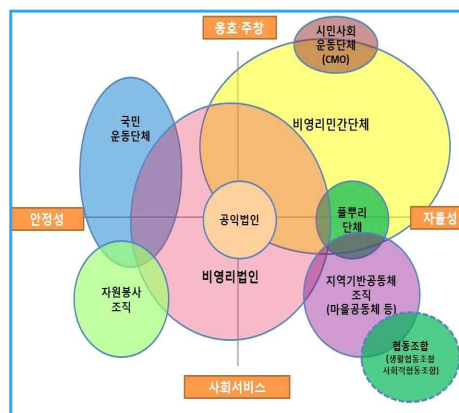
(4)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부침에 대한 도전들

- 와일드 카드(Wild Card)로서의 NGO! (J. Smith, 1997)



- 국가, 정당 그리고 사회운동간의 삼자적 관계 정립 (J. Goldstone 2003)
- 한국시민사회단체의 특수성: CMO-NGO-NPO (단선적 발전이 아니라 혼재와 부침)
- 법적 제도적 측면: 비영리법인(민법 32조, 1960), 공익법인설립/운영법(1975), 특별법 비영리법인(의료법인, 1973; 학교법인, 1963; 사회복지법인, 1970), 비영리민간지원법(2000), 소비자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단체 등
- 역사성 및 특수성: 정치사회로 떠난 전문가 및 활동가 (순환구조 부재); 사회운동사회; 제도화의 부메랑(여성정책, 다문화 정책); 진영논리로 인한 자원동원 확장 한계

4. 광의의 시민사회로의 확장과정에서 마주한 과제



출처:공석기·유지연(2017: 36)

(1) 위로부터 추격 전략에 대한 시민사회의 수동적 대응

- 노원구 EZ House 그리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 ‘협동적 인간’으로서의 시민의 주체적 참여 부족
-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주도성, 자율성, 책무성을 제고함

(2) 소통정치의 중요성

- Talking Politics (W. Gamson 2003): 지역주민의 인내와 끈기, 회복력 (resilience),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통의 정치
- 협치(governance) 앞에 왜 접두사가 붙은 이유에 대한 성찰 필요 (예) Good, Transparent, Democratic) Governance
- 일정 장소(지역)에서 풀뿌리 주민들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소통의 정치가 핵심

5. ALGOCRACY와 시민의 저항 전략

(1)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투명성 제고 전략

- 빅데이터 알고리즘: 정치, 사회, 경제 활동 감시 및 유인
- 정치 및 경제지배층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풀뿌리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활동
- 새로운 기술 동원 전략
- 감시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
- 정보 및 자료 집중이 아닌 정보 분산 전략 (예) wearable monitoring devices

(2) 디지털 플랫폼 시대

- 디지털 혁명 및 세계화,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 그리고 AI 부상: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지배과정으로 인해 인간의 참여 배제
-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 플랫폼 자본주의로 전환과정에서 개인은 타자를 바라보지도 않거나 심지어 직접적인 접촉을 주저함.
- 공감과 협력이 아니라 ‘좋아요’를 누르거나 불만에 대해서는 혐오의 언어로 일방적으로 쏟아냄으로써 인정과 경청은 사라지는 상황

6.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적 실천 과제

(1)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실천 과제

- ‘운동성’의 회복인가 포기인가?

-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렴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지배에 대한 순응인가 응전인가?
- ‘MZ 세대’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의 균형 잡기: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공동체에 헌신과 열정이 부족한 세대로 폄하하기
- 선순환적 ‘자원 동원’ 메커니즘 구축하기
- ‘풀뿌리 세계시민’을 꿈꾸는가 아니면 이기적 개인주의로 무장하여 전지구화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가 계급(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에 대한 로망을 갖고 살고 있는가?

(2)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 정체성 동원 전략
- 여성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주목
- MZ세대의 창의적 디지털 동원 전략과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
- 이주민과의 연대활동: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사회운동 전략 (예) #밀크티동맹

(3)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성

- A. Scholte(2003)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5가지: 공공교육(civility and awareness), 공공토론(deliberation and persuasion), 공공참여(engagement and involvement), 투명성(openness and accessibility), 책무성(monitoring and responsibility)
- 시민성을 갖춘 시민: Seeing Others(타자 바라보기), Hapticity(접촉 및 공감 능력), 경청과 속의민주주의

(4) 풀뿌리 세계시민(Rooted Cosmopoli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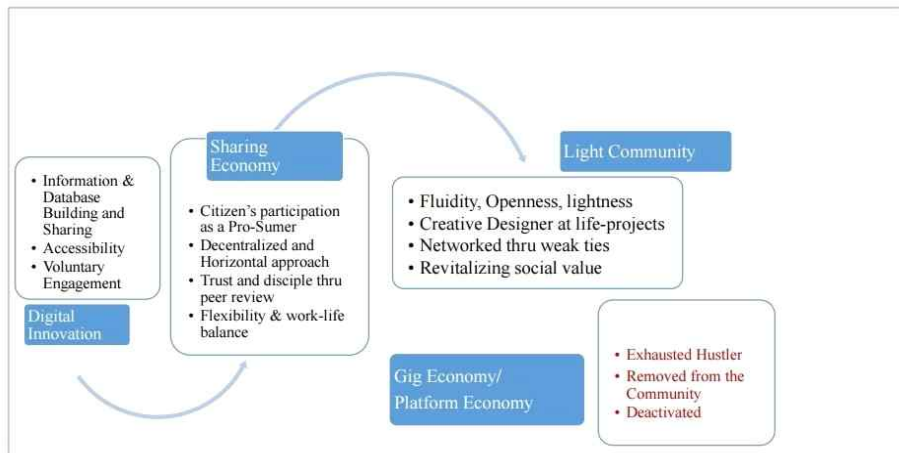
- 풀뿌리 세계시민은 두 단어의 역설적 결합처럼 기후 재난과 디지털 혁명으로 전지구적 위협과 정보지배체제의 강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갖추어 아래로부터의 저항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함
-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그것을 구체적 장소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7. 나오며: 풀뿌리 시민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가벼운 공동체’ 실험 제안

(1) 가벼운 공동체 전략

- 끈끈하고 무거운 공동체의 회복인가?
 - 진입(entry)과 퇴장(exit)이 보다 자유로운 공동체

- 개방적이고, 유연한, 가벼운 공동체 실험 (Fluidity; Openness; Lightness)
- 구체적 지역(마을)에서의 일상 실험(Life Projects)
 - 주민 스스로 프로젝트 구성 (Project-making)
 - 지역 그리고 마을 속에서 협동과 호혜의 자원 재발견 (Exploring)
 - 주민 간의 협동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 강화 (Collaborating)
- 일상생활의 창의적 설계와 변화
 - 능동적 실천하기 (Acting)
 - 창의적 경계 넘기 (Transgressing)
 - 혁신적 변화 추동하기 (Transforming)



출처: E. Manzini (2019) *Politics of the Everyday* (저자 재구성)

(2) 장애물에 대한 경계와 적극적인 참여 실험

- 보이지 않는 연고주의와 풀뿌리에 뿌리내린 장애물에 대한 경계 필요성. 텃세, 이익집단과 토건주의, 황색 저널리즘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남
-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는 가벼운 공동체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이 마주한 공동의 위기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차별 요소와 경계를 넘어서고, 구체적 장소에서 서로 만나고, 경청의 자세로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훈련이 중요함.
- 이러한 소통정치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함께 궁리하여, 지역 맥락에 부합한 창의적 대안을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의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가벼운 공동체임

- 공동체 구성원은 참여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이처럼 가벼운 공동체 실험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

<저자 소개>

공석기(skong@snu.ac.kr)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및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쳤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는 정치사회학, 사회운동론, 시민사회론, 인권사회학,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 ‘풀뿌리 세계시민’(Rooted Cosmopolitan Citizenship), ‘Algocracy와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

- 2023 *Covid-19 in East Asia and Aftermath*, Zininzin(공저)
- 2023 [한국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진인진((w/ 임현진, 정수복)
-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w/ 임현진)
- 2018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진인진(공저)
- 2017 [주민과 시민 사이: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활동 톺아보기] 진인진(w/ 임현진)
- 2016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진인진(w/ 임현진)
- 2014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 나남(w/ 임현진)
- 2011 [글로벌 NGOs: 세계정치의 ‘와일드카드’] 나남(w/ 임현진)
- 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출판문화원 (w/ 정진성, 구정우)